

가족과 함께 즐기고... 전통문화의 숨결 느끼고...



12일부터 3일간 임실군 강진면 필봉문화촌서 열려 고전무용과 장죽 무용·새타령·밀양 아리랑 등 펼쳐져 퓨전국악공연 '락바치'·지역 주민 구성 '두레놀이' 도

인류의 창의성과 문화의 다양성에 이바지하고 공동체간 화합을 촉진할 수 있다는 뜻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농악은 협치(協治)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이런 가운데 '농악 중심' 편이 펼쳐지는 올해 임실 필봉농악보존회의 마을굿 축제는 더욱 주목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임실필봉농악보존회가 주관하는 제21회 필봉마을굿축제는 오는 8월 12일(금)부터 14일(일)까지 2박 3일간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필봉문화촌에서 열린다.

필봉문화촌은 400여년 세월의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진 곳으로 필봉 농악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임실 필봉농악은 호남좌도 농악의 대표적인 종풍 곳으로, 선달그믐이나 정초의 제사 등 여러 의례에 공연되고 있으며 지난 1988년 8월, 중요무형문화재 제11-5호에 등재됐다.

그동안 필봉마을굿축제는 필봉농악이 전국적으로 이름난 종풍곳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기여를 했던 고 양순용 선생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1996년부터 시작되

었으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중요무형문화재 제11-5호 필봉농악을 비롯해 전국의 5대 농악과 중요무형문화재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인류무형문화유산 농악축제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중 국제 교류공연으로 무주시 조선족문화관과 대련시 조선족 문화예술관이 참여해 고전무용과 장죽 무용, 위그르족 무용, 새타령, 밀양 아리랑, 장새납 등의 무대가 펼쳐진다.

또 '무형유산의 한·중 학술교류세미나'로 중국 조선족 전통 문화의 현황과 고찰에 대해 무주시 조선족문화관 한광옥 관장과 중국 조선족 전통 무용의 변천과 현황에 대해 대련시 조선족문화예술관 황호철 관장의 발표가 이어져 임실필봉농악을 중심으로 한 한·중 문화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리에서는 '굿은 협화여~'를 강조해 온 양진성 관장(국가무형문화재 제11-5호 필봉농악 인간문화재)이 종풍의 사회

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게, 농악이 가진 협화의 뜻을 전하게 된다.

이밖에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악인 임실필봉농악, 진주·삼천포농악, 평택농악, 강릉농악 등을 감상할 수 있으며 대학생과 일반 동호인들이 주인공이 되는 각종 겨루기로는 전국 대학생 양순용배 종물굿 경연대회, 전국전통연희 생활문화동호인 경연대회, 전국전통연희 개인놀이 경연대회 등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참여 대상자를 선발하여 경연을 펼친다.

전통문화예술 전문가 중심의 경연이 아닌, 일반 대중들이 일상에서 접하며 배워온 전통 문화 예술 경연의 장이 될 것이다.

이것은 박제된 전통문화예술이 아닌 우리 생활 속 깊은 곳에 내재된 본성을 찾아 가는 놀이로서의 경연대회라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바라볼만 하다.

또한 특별기획공연으로 마련된 '필봉야류' 시간에는 일반 관객을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이 숨겨진 끼를 발산한다.

이 시간만큼은 자신들도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무대를 선보이게 되며 사회적 기업 전통문화마을의 퓨전국악공연 '락바치', 임실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전통예술원 두레의 '임실 두레놀이'에서는 백중놀이와 상머슴 뽑기, 두레 판굿을

만날 수 있다.

여기에 잊혀져간 추억의 장터를 재현하는 필봉 5일 장터가 열리고, 임실군 관내에서 재배 생산된 농·특산물을 판매해 지역 주민들에게도 보탬이 되는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농악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공연들과 함께 무형 유산 교류의 활성화, 종풍의 대중화는 물론 한옥 숙박 체험단지를 구축하고 있어 가족과 함께 축제를 즐기며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전통문화의 공간으로 인식시켜 나가고 있다.

임실필봉마을굿축제는 전통 및 공연, 축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문예진흥기금지원 공연예술행사 평가에서 A등급인 매우 우수한 축제로 선정된 바 있다. 다양한 형태의 전통연희를 한 자리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전통예술의 보존과 대중적 확산에 기여한다는 사업의 목적을 매우 잘 살려냈다는 평가이다.

또한, 전통공연예술 활성화를 계기 마련과 전문 연희자들 외에도 아마추어와 지역민의 참여기회를 프로그램에 담아 지역축제로서의 의미를 잘 살려냈으며 일자별, 시간별, 장소별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타 축제와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실=진홍영 기자

풍화경을 갖출

동북아경제추진 명품도시 군산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